

3남매·3代 걸친 육군 학군장교 집안 탄생...119개교 2464명 ROTC 임관식

정충신 선임기자 입력 2026. 2. 26. 23:57

육군 2182·해군 73·공군 145·해병 64명
임관종합평가 통과하며 장교 임관
지휘참모과정 후 6월 말 부대 배치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소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전국 119개 학생군사교육단(ROTC)에서 정예 장교로 성장한 신임 학군장교 2464명이 임무 완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육군은 26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2026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학군장교 2464명이 후보생 꼬리표를 떼고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군별로는 육군 2182명, 해군 73명, 공군 145명, 해병대 64명 등이다. 그중 여군은 총 421명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우등상(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육군 제공

신임 장교들은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9개 대학에서 1·2학년 때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 2년간 전공교육·군사학교육·군사훈련을 이수했다. 마지막 관문인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장교로 임관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관식에는 가족과 친지, 각 군 주요 인사, 대학교 총장 등 1만7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조하준(가톨릭대) 육군소위, 정찬혁(한국항공대) 공군소위, 최윤주(부경대) 해병소위가 받았다.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이기도 한 조 소위는 “장교로 임관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국민과 헌법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충성의 다짐’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강군의 결의’ ‘현장에서 전우와 함께하며 늘 솔선수범하겠다는 헌신의 의지’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여러분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이 존경을 보내는 나라, 장교라는 이름이 곧 신뢰의 상징이 되는 군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장교들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6월 말 야전부대로 배치돼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신임 장교 중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3대(代) 학군장교 및 군인가족, 3개의 군번을 가진 화제의 인물이 여럿 포함됐다.

이상훈(계명대) 육군소위의 증조부는 독립운동가 고(故) 이교륜 선생이다. 선생은 1919년 3월 22~23일 경남 진주에서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고 독립의뢰서, 조선독립완문서, 조선독립협력서 등을 작성했다. 정부는 그 공적을 기려 1993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이 소위의 할아버지인 고 이근호 씨도 공군준위로 전역했다. 이 소위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애국심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정구(연세대) 육군소위는 학군 9기인 할아버지, 학군 34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3대를 이은 학군장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받아 모범이 되는 장교가 되겠다”고 전했다.

정예인(대전대) 육군소위는 ‘3남매 육군 학군장교’라는 특이 이력의 보유자가 됐다. 큰오빠는 학군 58기로 전역했으며, 작은오빠 정재형 대위는 학군 60기다. 또한 할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 아버지는 대위로 전역한 뒤 현재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학군단 출신 가족도 탄생했다. 현경탁(제주대) 해병소위는 아버지와 숙부의 뒤를 이어 제주대 학군단을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했다. 한다빈(제주대) 해병소위 역시 아버지와 이모부와 같은 학군단 출신이다.

양승우(계명대) 육군소위는 병·부사관 복무를 마치고 장교로 임관해 3개의 군번을 갖게 됐다. 양 소위는 “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보람과 배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자란 애국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